

분기 출산율 0.6명대 ...역대·세계 최저 경신



▲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비어 있는 요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한번 역대·세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4·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앉았고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을 기록하는 등 출산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05명 감소했다. 0.7명 선마저 붕괴되면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지표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환갑 이상 고령자

지난해 한국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환갑이 넘은 이들의 비중도 36%로 사상 최대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지난 27일 '동아일보'가 한국 통계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늘어난 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고령층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가 넘는 이들의 비중도 36.4%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17.7%)의 2배가 넘는다. 자영업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는 50대(27.3%)였고, 40대(20.5%)와 30대(12.4%)가 뒤를 이었다.



▲ 영업 준비 중인 고령의 나홀로 사장님. 사진=shutterstock

특히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5명 중 2명 이상은 환갑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60세가 넘는 이들의 비중은 41.2%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2.2%였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아침 식사 배달 주문 급증

이른 아침 배달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한 끼도 간편하게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상품배달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외식업 트렌드와 주목할 만한 동향을 미리 예측해 보는 '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오전 6~9시 배달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메뉴는 주로 카페·디저트·패스트푸드·백반·죽·국수 등에 집중됐다.

야식 주문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새벽 1~3시 심야



▲ 한 배달원이 포장한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시간대 주문은 전년대비 13% 늘었다. 메뉴는 치킨·고기·구이류 등에 집중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 앱이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심야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스낵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요네즈 소스를 활용한 메뉴와 저당 메뉴도 크게 늘었다. 작년 2~8월 에 그 마요·청양 마요·참치 마요·

고추 마요·스리라차 마요 등 마요 소스 활용 음식 메뉴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1.4배 늘었다.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장 함유량을 낮춘 저당 메뉴도 같은 기간 2.2배 늘었다. 설렁 대체 감미료인 스테비아 관련 메뉴 주문 수는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

